

震顫을 主 症狀으로 入院한 患者 30例에 對한 臨床的 考察

朴智雲 · 李相龍*

Abstract

Clinical Study for Tremor in 30 Admission Cases

Park Ji-un, O. M. D. and Lee Sang-ryong, O. M. D., Ph. D.
Dept. of Oriental Medicine Neuropsychiatric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The clinical study was carried out the 30 patients with tremor who were treated in Daejeon University Oriental Hospital from 1 April 1997 to 31 March 2001.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atio of female was higher, especially in the psychosomatic tremor, the ratio of female was higher and in the age distribution the aged over 50 were higher frequency.
2. The case without past history was most, the most ordinary preceding disease was hypertension and the next was diabetes, drinking history had no concern with tremor, first visit was most, in the psychosomatic tremor complication by relation was the most inducing factor and both parkinson tremor and essential tremor were no inducing factor.
3. Tremor appeared to be busy in extremities, parkinson tremor appeared to be accompanied with musculoskeletal system symptoms and they were in descending order lower limb weakness, extremities numbness, general body weakness e.t.c. both essential tremor and psychosomatic tremor appeared to be accompanied with psychosomatic symptoms and they were in descending order dizziness, headache e.t.c.
4. In classification of Four Human coporeal constitution the number of patients, Tae-Eum-In(太陰人) was most, the prescription drugs of tranquillizing the liver and relieving anxiety such as GYEJIYONGGOLMORYETANG(桂枝加龍骨牡蠣湯) and nourishing Yin, blood and relieving anxiety such as SAMULANSINTANG(四物安神湯) were used to be busy.
5. The rate of treatment was collectively improved and was higher in the young age than in the old age, the period of the clinical history was the shorter within one month, the rate of improvement was the better

I. 緒論

震顫이란 振掉, 顫振, 顫證이라고도 하는데¹⁾, 大概 上下肢의 末端部位에서 볼 수 있는 不隨意 運動을 말하며, 때로는 體幹·頭部·顔面·턱·舌 등으로 波及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2,3)}, 老人에게 多發하며, 男性이 女性에 比하여 多發하는 疾患이다^{4,5)}.

韓醫學的으로 살펴보면 內經에는 《素問·至真要大論》⁶⁾에 “諸風掉眩 皆屬於肝 ……散于四末 則手足動而頭不動也.”이라 하여 掉이 震顫을 가리키는 것으로 震顫의 症狀을 最初로 言及하였고, 肝과 關係가 있다고 보았다.

病機를 살펴보면 王 冬^{7,8)}은 內經의 뜻과 一致하게 肝風으로 보았고, 許 登⁹⁻¹¹⁾은 心血虛, 氣血內傷으로 보았고, 樓¹²⁾는 風熱, 風寒, 風挾濕痰, 虛症으로 보았으며, 劑¹³⁾는 肝鬱氣滯, 風痰內阻, 肝腎陰虛, 氣血虧損, 瘀血阻絡으로 보았다.

西洋醫學的으로 震顫이란 比較的 律動的인 震動運動으로 大部分 大腦皮質의 椎體外路系疾患으로 因하여 震顫이 發生한다고 認識하고 있으며^{14,15)}, 또한 腦內 神經傳達物質의 增量變化 및 心理的 要因에 依해서도 惹起된다고 보고 있다¹⁶⁻¹⁹⁾.

原因에 따라 보면 크게 腦의 病變과 聯關된 多様な 震顫과, 特別한 原因을 알 수 없는 本態性 震顫, 그리고 疲勞, 感情的 興奮, 寒冷時에 누구나 經驗할 수 있는 生理的 震顫으로 分類할 수 있다²⁰⁾.

近來에 營養狀態의 改善과 傳染性 疾患의 克服 등으로 人間의 壽命이 延長되고, 産業構造의 多變化로 各種 精神的, 肉體的 刺戟要因들이 增加하면서 老化로 因한 震顫이 增加하는 趨勢에 있다¹⁵⁾.

最近 震顫에 對한 研究를 살펴보면 金¹⁶⁾의 顫證에 關한 文獻의 考察과, 清心溫膽湯, 加味鉤藤飲, 抑肝散 등과, 鈞藤水鍼, 葛根水鍼, 天麻水鍼을 利用한 抗痙攣 作用에 關한 實驗的 研究²¹⁻²⁶⁾를 接할 수 있었으나 臨床的인 考察은 아직 接해보지 못하였다. 이에 著者는 1997年 4月 1일부터 2001年 3月 31日 까지 大田大學校 附屬 韓方病院 神經精神科에 震顫을 主訴로 入院한 患者 30例를 對象으로 臨床的 考察을 한 結果 若干의 知見을 얻었

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研究對象

1997年 4月 1일부터 2001年 3月 31日 까지 4年 동안 大田大學校 附屬 韓方病院 神經精神科에 震顫을 主訴로 하여 入院한 患者 30例를 對象으로 하였다.

2. 研究方法

1) 觀察方法

震顫은 原因에 따라 腦內病變에 衣한 震顫과, 原因이 없이 自然히 나타나는 原發性 震顫, 心理的인 理由로 因하여 發生하는 心因性 震顫으로 分類할 수 있는데, 腦內病變에 衣한 震顫으로 本院에 入院한 患者의 대다수가 파킨슨樣 震顫의 樣象을 보여 本院 神經精神科에서 震顫을 主訴로 入院하였던 患者 30例를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으로 分類한 다음 아래와 같은 方法으로 나누고 分析, 觀察하여 表로 定理하였다.

- (1) 性別, 年齡別 分布
- (2) 過去歷 分布
- (3) 飲酒歷 分布
- (4) 入院前 治療狀況 分布
- (5) 發病動機 分布
- (6) 病歷期間 分布
- (7) 入院期間 分布
- (8) 發生部位 分布
- (9) 同伴 症狀 分布
- (10) 體質 分布
- (11) 處方 分布
- (12) 파킨슨樣 震顫 患者의 Brain CT Scan 分布

2) 治療成績 考察 方法

症狀에 따라 藥物療法, 鍼治療와 患者 狀態에 따라 耳鍼療法, 香氣治療, 物理治療, 冥想治療한 後 治療成績을 아래와 같은 方法으로 分類하여 優秀, 良好, 別無變化로 分析, 觀察 후 表로 定理하였다.

- (1) 性別·年齡別 治療成績
- (2) 震顫 分類別 治療成績
- (3) 病歷期間別 治療成績
- (4) 入院期間別 治療成績

3) 治療成績의 判定基準

患者, 保護者를 통한 好轉度에 對한 問答과 震顫의 程度에 對한 客觀的 觀察을 根據로 다음 3段 階로 나누어 治療成績의 判定基準을 삼았다.

- ① 優秀 : 治療後 症狀의 거의 完全한 消失이 있었던 境遇.
- ② 良好 : 治療後 症狀의 輕減이 있었으나, 아직 불편함을 呼訴하는 境遇.
- ③ 別無變化 : 治療後 症狀의 變化가 없는 境遇.

III. 研究成績

1. 觀察成績

1) 性別·年齡別 分布

(1) 性

性別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男性이 4例(36.4%), 女性이 7例(63.6%)이었고, 原發性 震顫은 男性이 5例(45.5%), 女性이 6例(54.5%) 이었으며, 心因性 震顫은 男性이 1例(12.5%), 女性이 7例(87.5%)로 全體의으로는 男性 10例(33.3%), 女性 20例(66.7%)이었다(表1-1).

表1-1. 性

性別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	症例(%)
男	4(36.4)	5(45.5)	1(12.5)	10(33.3)
女	7(63.6)	6(54.5)	7(87.5)	20(66.7)
計	11(100)	11(100)	8(100)	30(100)

(2) 年齡

年齡別로는 파킨슨樣 震顫은 60, 70代가 各各 5例(45.5%)로 가장 많았고, 80代가 1例(9.1%)였다. 原發性 震顫은 70代가 7例(63.7%)로 가장 많았고, 60代 2例(18.2%), 20, 40代 各各 1例(9.1%)이었다. 心因性 震顫은 60代가 4例(50%)로 가장 많았고,

50對 2例(25%), 30, 70代가 各各 1例(12.5%)이었다. 全體의으로 60代 以上の 高齡層에 多發하였다. (表1-2).

表1-2. 年齡

年齡(歲)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	症例(%)
20~29	0(0)	1(9.1)	0(0)	1(3.3)
30~39	0(0)	0(0)	1(12.5)	1(3.3)
40~49	0(0)	1(9.1)	0(0)	1(3.3)
50~59	0(0)	0(0)	2(25)	2(6.7)
60~69	5(45.5)	2(18.2)	4(50)	11(36.7)
70~79	5(45.5)	7(63.6)	1(12.5)	13(43.3)
80~89	1(9.1)	0(0)	0(0)	1(3.3)
計	11(100)	11(100)	8(100)	30(100)

2) 過去歷 分布

過去歷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別無, 高血壓이 4例(26.7%)로 가장 많았고, 糖尿 3例(20%) 脊椎障礙 2例(13.3%) 心臟·血管疾患, 腦血管疾患이 各各 1例(6.7%)이었다. 原發性 震顫은 別無, 高血壓, 脊椎障礙, 心臟血管疾患이 各各 3例(18.8%)로 가장 많았고, 糖尿, 腦血管疾患이 2例(12.5%)이었다. 心因性 震顫은 別無, 糖尿가 各各 3例(25%)로 가장 많았고, 高血壓, 憂鬱症이 2例(16.7%), 脊椎障礙, 心臟血管疾患이 各各 1例(8.3%)이었다. 全體의으로 別 다른 過去歷이 없는 境遇가 10例(23.3%)로 가장 많았고, 高血壓 9例(20.9%), 糖尿 8例(18.6%), 脊椎障礙 6例(14.0%) 心臟·血管疾患 5例(11.6%), 腦血管疾患 3例(7.0%), 憂鬱症 2例(4.7%)의 順으로 나타났다(表2).

表2. 過去歷

過去歷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	症例(%)
高血壓	4(26.7)	3(18.8)	2(16.7)	9(20.9)
糖尿	3(20)	2(12.6)	3(25)	8(18.6)
脊椎障礙	2(13.3)	3(18.8)	1(8.3)	6(14.0)
心臟,血管疾患	1(6.7)	3(18.8)	1(8.3)	5(11.6)
腦血管疾患	1(6.7)	2(12.5)	0(0)	3(7.0)
憂鬱症	0(0)	0(0)	2(16.7)	2(4.7)
別無	4(26.7)	3(18.8)	3(25)	10(23.3)
計	15(100)	16(100)	12(100)	43(100)

3) 飲酒歷 分布

1日 소주 3잔 以下를 마시는 境遇를 少量飲酒, 그 以上을 마시는 境遇를 多量飲酒로 分類하여, 飲酒歷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無飲酒가 9例(81.8%)로 가장 많았고, 少量飲酒, 多量飲酒가 各各 1例(9.1%)이었다. 原發性 震顫은 無飲酒가 9例(81.8%)로 가장 많았고, 少量飲酒가 2例(18.2%)이었으며, 多量飲酒는 없었다. 心因性 震顫은 無飲酒가 6例(75%)로 가장 많았고, 少量飲酒, 多量飲酒가 各各 1例(12.5%)로 나타났다. 全體의 으로 無飲酒가 24例(80%)로 나타났고, 少量飲酒가 4例(13.3%), 多量飲酒가 2例(6.7%)로 나타났다(表3).

表3. 飲酒歷

飲酒歷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	症例(%)
無飲酒	9(81.8)	9(81.8)	6(75)	24(80)
少量飲酒	1(9.1)	2(18.2)	1(12.5)	4(13.3)
多量飲酒	1(9.1)	0(0)	1(12.5)	2(6.7)
計	11(100)	11(100)	8(100)	30(100)

4) 入院 前 治療現況의 分布

入院 前 治療現況의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洋方病院을 利用한 境遇가 4例(36.4%)로 가장 많았고, 初診, 韓醫院, 洋方病院→韓醫院이 各各 2例(18.2%), 韓醫院→洋方病院이 1例(9.1%)의 順이었다. 原發性 震顫은 初診이 9例(81.8%)로 가장 많았고, 洋方病院이 2例(18.2%)이었다. 心因性 震顫은 初診이 6例(75%)로 가장 많았고, 洋方病院, 洋方病院→韓醫院이 各各 1例(12.5%)의 順이었다. 全體의 으로 初診이 17例(56.7%)로 가장 많았고, 洋方病院은 7例(23.3%), 洋方病院→韓醫院은 3例(10%), 韓醫院은 2例(6.7%), 韓醫院→洋方病院은 1例(3.3%)의 順으로 나타났다(表4).

表4. 入院 前 治療現況

治療現況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	症例(%)
初診	2(18.2)	9(81.8)	6(75)	17(56.7)
洋方病院	4(36.4)	2(18.2)	1(12.5)	7(23.3)
洋方病院→韓醫院	2(18.2)	0(0)	1(12.5)	3(10)
韓醫院	2(18.2)	0(0)	0(0)	2(6.7)
韓醫院→洋方病院	1(9.1)	0(0)	0(0)	1(3.3)
計	11(100)	11(100)	8(100)	30(100)

5) 發病動機 分布

發病動機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과 原發性 震顫은 特別한 發病動機가 없었으며, 心因性 震顫은 對人關係葛藤이 4例(50%)로 가장 많았고, 發病動機가 없는 境遇가 2例(25%), 精神的 衝擊, 健康念慮가 各各 1例(12.5%)의 順이었다(表5).

表5. 發病動機

發病動機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	症例(%)
別無	11(100)	11(100)	2(25)	24(80)
對人關係葛藤	0(0)	0(0)	4(50)	4(13.3)
精神的 衝擊	0(0)	0(0)	1(12.5)	1(3.3)
健康念慮	0(0)	0(0)	1(12.5)	1(3.3)
計	11(100)	11(100)	8(100)	30(100)

6) 病歷期間 分布

病歷期間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6個月 以上이 5例(45.5%)로 가장 많았고, 1週日~1個月 以內가 2例(18.2%), 2日 以內, 2日~1週日 以內, 1~3個月 以內, 3~6個月 以內가 各各 1例(9.1%)이었다. 原發性 震顫은 6個月 以內가 4例(36.4%), 2日~1週日 以內가 3例(27.3%), 2日 以內가 2例(12.5%)이었다. 心因性 震顫의 境遇는 1~3個月 以內가 3例(37.5%), 2日~1週日, 1週日~1個月 以內가 各各 2例(25%), 2日 以內가 1例(12.5%)이었다. 全體의 으로 6個月 以上이 9例(30%)로 가장 많았고, 2日~1週日 以內가 6例(20%), 1週日~1個月 以內, 1~3個月 以內가 各各 5例(16.7%), 2日 以內가 4例(13.3%), 3~6個月 以內가 1例(3.3%)의 順이었다(表6).

表6. 病歷期間

病歷期間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	症例(%)
2日 以內	1(9.1)	2(18.2)	1(12.5)	4(13.3)
2日~1週日 以內	1(9.1)	3(27.3)	2(25)	6(20)
1週日~1個月 以內	2(18.2)	1(9.1)	2(25)	5(16.7)
1~3個月 以內	1(9.1)	1(9.1)	3(37.5)	5(16.7)
3~6個月 以內	1(9.1)	0(0)	0(0)	1(3.3)
6個月 以上	5(45.5)	4(36.4)	0(0)	9(30)
計	11(100)	11(100)	8(100)	30(100)

7) 入院期間 分布

入院期間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1週日 以內가 5例(45.5%)로 가장 많았고, 1週日~1個月 以內 3例(27.3%), 1~3個月 以內 2例(18.2%), 1~2週日 以內가 1例(9.1%)이었다. 原發性 震顫은 1週日 以內가 7例(63.6%), 1~2週日 以內가 3例(27.3%), 2週日~1個月 以內가 1例(9.1%)이었다. 心因性 震顫은 1週日 以內, 2週日~1個月 以內가 各 各 3例(37.5%)로 가장 많았고, 1~2週日 以內가 2例(25%)이었다. 全體적으로 1週日 以內가 15例(50%)로 가장 많았고, 2週日~1個月 以內 7例(23.3%), 1~2週日 以內 6例(20%), 1~3個月 以內 2例(6.7%)이었으며, 파킨슨樣 震顫의 境遇 入院期間이 다양하였고,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의 境遇 모두 2週日~1個月 以內로 入院期間이 짧았다(表7).

表7. 入院期間

入院期間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	症例(%)
1週日 以內	5(45.5)	7(63.6)	3(37.5)	15(50)
1~2週日 以內	1(9.1)	3(27.3)	2(25)	6(20)
2週日~1個月 以內	3(27.3)	1(9.1)	3(37.5)	7(23.3)
1~3個月 以內	2(18.2)	0(0)	0(0)	2(6.7)
計	11(100)	11(100)	8(100)	30(100)

8) 發生部位 分布

發生部位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四肢部가 8例(50%)로 가장 많았는데, 兩側上肢 3例(18.8%), 兩側手部 2例(12.5%), 偏側上肢, 偏側手部, 偏側上下肢 各 各 1例(6.3%)의 順이었으며, 頭面部는 2例(12.5%)로 모두 舌部에 나타났으며, 全身 4例(25%), 體幹部 2例(12.5%)의 順이었다. 原發性 震顫은 四肢部가 8例(57.1%)이었는데, 兩側上肢, 偏側上下肢, 兩側手部가 各 各 2例(14.3%), 偏側上肢, 四肢 各 各 1例(7.1%)의 順이었으며, 頭面部는 4例(28.6%)로 顏面部, 頭部 各 各 2例(14.3%)로 나타났고, 全身은 2例(14.3%)이었다. 心因性 震顫은 四肢部가 6例(60%)이었는데 偏側上下肢 2例(20%), 偏側上肢, 偏側下肢, 兩側下肢, 四肢 各 各 1例(10%)의 順이었으며, 全身 2例(20%), 頭面部는 1例(10%)로 顏面部에 나타났고, 體幹部 1例(10%)로

나타났다. 全體적으로 四肢部가 22例(55%)로 가장 많았는데, 兩側上肢, 偏側上下肢 各 各 5명(12.5%), 兩側手部 4例(10%), 偏側上肢 3例(7.5%), 四肢 2例(5%), 偏側手部, 偏側下肢, 兩側下肢 各 各 1例(2.5%)의 順이었으며, 全身 8例(20%), 頭面部는 7例(17.5%)로 顏面部 3例(7.5%), 舌部, 頭部 各 各 2例(5%)의 順이었으며, 體幹部는 3例(17.5%)이었다(表8).

表8. 發生部位

發生部位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	症例(%)
兩側上肢	3(18.8)	2(14.3)	0(0)	5(12.5)
偏側上肢	1(6.3)	1(7.1)	1(10)	3(7.5)
兩側手部	2(12.5)	2(14.3)	0(0)	4(10)
四肢	1(6.3)	0(0)	0(0)	1(2.5)
偏側下肢	0(0)	0(0)	1(10)	1(2.5)
兩側下肢	0(0)	0(0)	1(10)	1(2.5)
偏側上下肢	1(6.3)	2(14.3)	2(20)	5(12.5)
四肢 計	8(50)	8(57.1)	6(60)	22(55)
頭面部	0(0)	2(14.3)	1(10)	3(7.5)
舌部	2(12.5)	0(0)	0(0)	2(5)
頭部	0(0)	2(14.3)	0(0)	2(5)
計	2(12.5)	4(28.6)	1(10)	7(17.5)
體幹部	2(12.5)	0(0)	1(10)	3(7.5)
全身	4(25)	2(14.3)	2(20)	8(20)
計	16(100)	14(100)	10(100)	40(100)

9) 同伴 症狀 分布

同伴 症狀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筋骨格系 症狀이 15例(51.7%)로 가장 많았는데 下肢無力感이 5例(17.2%)로 가장 많았고, 肩項痛 3例(10.3%), 四肢痺感, 全身無力感 各 各 2例(6.9%), 徐動症, 全身硬直, 腰痛 各 各 1例(3.4%)의 順이었다. 다음으로 精神身體 症狀이 12例(41.3%)였는데 語鈍이 3例(10.3%)로 가장 많았고, 頭痛, 胸悶 各 各 2例(6.9%), 眩暈, 不眠, 心悸, 上熱感, 記憶力減退 各 各 1例(3.4%)의 順이었다. 다음으로 消化器系 症狀으로 食慾不振이 2例(6.9%)였다. 原發性 震顫은 精神身體 症狀이 13例(52%)로 가장 많았는데, 眩暈이 3例(12%)로 가장 많았고, 語鈍, 胸悶, 頭痛 2例(8%), 心悸, 上熱感, 記憶力減退, 譫語 各 各 1例(4%)의 順이었다. 다음으로 筋骨格系 症狀

이 8例(32%)였는데 全身無力感, 腰痛이 3例(12%)로 가장 많았고, 四肢痺感, 肩項痛 各各 1例(4%)였다. 消化器系 症狀은 4例(16%)로 食慾不振, 消化障礙가 各各 2例(8%)였다. 心因性 震顫은 精神身體 症狀이 23例(60.5%)로 가장 많았는데, 眩暈, 不眠이 各各 6例(15.9%)로 가장 많았고, 頭痛 3例(7.9%), 語鈍, 不安, 胸悶 各各 2例(5.3%), 心悸, 上熱感 各各 1例(2.6%)의 順이었다. 筋骨格系 症狀은 10例(26.3%)였는데 全身無力感이 4例(10.5%)로 가장 많았고, 下肢無力感 3例(7.9%), 腰痛, 四肢痺感, 偏側無力感 各各 1例(2.6%)의 順이었다. 消化器系 症狀은 5例(13.2%)였는데 食慾不振 7例(7.6%), 消化障礙 3例(3.3%), 便秘 1例(1.1%)의 順이었다. 全體的으로 보면 精神身體 症狀이 48例(52.2%)로 가장 많았는데, 眩暈이 10例(10.9%), 頭痛, 不眠, 語鈍이 各各 7例(7.6%), 胸悶이 6例(6.5%), 心悸, 上熱感이 3例(3.3%), 不安, 記憶力減退가 2例(2.2%), 譫語가 1例(1.1%)의 順이었다. 다음으로 筋骨格系 症狀이 33例(35.9%)였는데 全身無力感이 9例(9.8%), 下肢無力感이 8例(8.7%), 腰痛이 5例(5.4%), 四肢痺感, 肩項痛이 各各 4例(4.3%), 偏側無力感, 全身硬直, 徐動症이 各各 1例(1.1%)의 順이었다. 消化器系 症狀은 11(12%)였는데 食慾不振이 7例(7.6%), 消化障礙 3例(3.3%), 便秘 1例(1.1%)의 順으로 나타났다(表9).

表9. 同伴 症狀

症狀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	症例(%)
眩暈	1(3.4)	3(12)	6(15.9)	10(10.9)
頭痛	2(6.9)	2(8)	3(7.9)	7(7.6)
不眠	1(3.4)	0(0)	6(15.9)	7(7.6)
語鈍	3(10.3)	2(8)	2(5.3)	7(7.6)
精神 胸悶	2(6.9)	2(8)	2(5.3)	6(6.5)
身體 心悸	1(3.4)	1(4)	1(2.6)	3(3.3)
症狀 上熱感	1(3.4)	1(4)	1(2.6)	3(3.3)
不安	0(0)	0(0)	2(5.3)	2(2.2)
記憶力減退	1(3.4)	1(4)	0(0)	2(2.2)
譫語	0(0)	1(4)	0(0)	1(1.1)
計	12(41.3)	13(52)	23(60.5)	48(52.2)

症狀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	症例(%)
全身無力感	2(6.9)	3(12)	4(10.5)	9(9.8)
下肢無力感 (步行障礙)	5(17.2)	0(0)	3(7.9)	8(8.7)
筋骨格系 腰痛	1(3.4)	3(12)	1(2.6)	5(5.4)
肩項痛	3(10.3)	1(4)	0(0)	4(4.3)
疾患 四肢痺感	2(6.9)	1(4)	1(2.6)	4(4.3)
偏側無力感	0(0)	0(0)	1(2.6)	1(1.1)
全身硬直	1(3.4)	0(0)	0(0)	1(1.1)
徐動症	1(3.4)	0(0)	0(0)	1(1.1)
計	15(51.7)	8(32)	10(26.3)	33(35.9)
消化器系 食慾不振	2(6.9)	2(8)	3(7.9)	7(7.6)
症狀 消化障礙	0(0)	2(8)	1(2.6)	3(3.3)
便秘	0(0)	0(0)	1(2.6)	1(1.1)
計	2(6.9)	4(16)	5(13.2)	11(12)

10) 體質 分布

體質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少陰人 이 6例(54.5%)로 가장 많았고, 太陰人 4例(36.4%), 少陽人 1例(9.1%)의 順이었다. 原發性 震顫은 太陰人 이 6例(36.4%)로 가장 많았고, 少陰人 3例(27.3%), 少陽人 2例(18.2%)의 順이었다. 心因性 震顫은 太陰人, 少陰人 이 各各 4例(50%)의 順이었다. 全體的으로 太陰人 이 14例(46.7%)로 가장 많았고, 少陰人 13例(43.3%), 少陽人 3例(10%)의 順으로 나타났다(表10).

表10. 體質

體質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	症例(%)
太陰人	4(36.4)	6(36.4)	4(50)	14(46.7)
少陰人	6(54.5)	3(27.3)	4(50)	13(43.3)
少陽人	1(9.1)	2(18.2)	0(0)	3(10)
太陽人	0(0)	0(0)	0(0)	0(0)
計	11(100)	11(100)	8(100)	30(100)

11) 處方 分布

處方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養陰血 安神하는 處方이 8例(42.1%)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四物歸脾湯, 大補陰丸 各各 2例(10.5%), 四物安神湯, 加味地黃飲子, 愈風養營湯, 荊防地黃湯 各各 1例(5.3%)였으며, 鎮肝安神하는 處方이 6例(31.6%)로 桂枝加龍骨牡蠣湯 5例

(26.3%), 鎮肝熄風湯 1例(5.3%)였으며, 淸養心溫膽하는 處方이 3例(15.8%)로 淸心湯, 涼膈散火湯, 夏朮補心湯이 各各 1例(5.3%)였으며, 健脾益氣하는 補中益氣湯 1例(5.3%), 順氣理氣하는 痺症A 1例(5.3%)로 나타났다. 原發性 震顫은 健脾益氣하는 處方이 4例(30.8%)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補益湯, 補中益氣湯, 大補湯, 香砂平胃散이 各各 1例(7.7%)였으며, 鎮肝安神하는 桂枝加龍骨牡蠣湯이 3例(23.1%)였으며, 淸養心溫膽하는 處方이 2例(15.4%)였는데 淸心湯, 歸脾溫膽湯이 各各 1例(7.7%)였으며, 養陰血安神하는 處方이 2例(15.4%)였는데 四物安神湯, 獨活續斷湯이 各各 1例(7.7%)였고, 疏肝解鬱하는 淸肝逍遙散과 順氣理氣하는 星香正氣散이 各各 1例(7.7%)였다. 心因性 震顫은 健脾益氣하는 處方이 4例(26.6%)였는데 補益湯 2例(13.3%), 補中益氣湯, 人蔘養胃湯 各各 1例(6.7%)였으며, 鎮肝安神하는 桂枝加龍骨牡蠣湯이 4例(26.7%)였으며, 淸養心溫膽하는 處方이 3例(20%)였는데 淸心湯, 歸脾溫膽湯, 萬金文武湯이 各各 1例(6.7%)였고, 養陰血安神하는 處方도 3例(20%)였는데 加味四七湯, 安神淸腦湯, 四物安神湯이 各各 1例(6.7%)였으며, 順氣理氣하는 星香正氣散이 1例(6.7%)였다(表11).

表11. 處方

處方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	症例(%)
補益湯	0(0)	1(7.7)	2(13.3)	3(6.4)
健脾 補中益氣湯	1(5.3)	1(7.7)	1(6.7)	3(6.4)
大補湯	0(0)	1(7.7)	0(0)	1(2.1)
益氣 人蔘養胃湯	0(0)	0(0)	1(6.7)	1(2.1)
香砂平胃散	0(0)	1(7.7)	0(0)	1(2.1)
計	1(5.3)	4(30.8)	4(26.7)	9(19.1)
淸養心溫膽 淸心湯	1(5.3)	1(7.7)	1(6.7)	3(6.4)
歸脾溫膽湯	0(0)	1(7.7)	1(6.7)	2(4.3)
萬金文武湯	0(0)	0(0)	1(6.7)	1(2.1)
涼膈散火湯	1(5.3)	0(0)	0(0)	1(2.1)
夏朮補心湯	1(5.3)	0(0)	0(0)	1(2.1)
計	3(15.8)	2(15.4)	3(20)	8(17.0)

處方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	症例(%)
四物安神湯	1(5.3)	1(7.7)	1(6.7)	3(6.4)
四物歸脾湯	2(10.5)	0(0)	0(0)	2(4.3)
大補陰丸	2(10.5)	0(0)	0(0)	2(4.3)
加味四六湯	0(0)	0(0)	1(6.7)	1(2.1)
養陰血安神 加味地黃飲子	1(5.3)	0(0)	0(0)	1(2.1)
安神淸腦湯	0(0)	0(0)	1(6.7)	1(2.1)
愈風養營湯	1(5.3)	0(0)	0(0)	1(2.1)
荊防地黃湯	1(5.3)	0(0)	0(0)	1(2.1)
獨活續斷湯	0(0)	1(7.7)	0(0)	1(2.1)
計	잘못된 계산식(5.4)	잘못된 계산식(15.4)	잘못된 계산식(20)	잘못된 계산식(27.7)
疏肝解鬱 淸肝逍遙散	0(0)	1(7.7)	0(0)	1(2.1)
計	0(0)	1(7.7)	0(0)	1(2.1)
順氣理氣 星香正氣散	0(0)	1(7.7)	1(6.7)	2(4.3)
痺症A	1(5.3)	0(0)	0	1(2.1)
計	1(5.3)	1(7.7)	1(6.7)	3(6.4)
鎮肝安神 桂枝加龍骨牡蠣湯	5(26.3)	3(23.1)	4(26.7)	12(25.5)
鎮肝熄風湯	1(5.3)	0(0)	0(0)	1(2.1)
計	6(31.6)	3(23.1)	4(26.7)	13(27.7)
總計	19(100)	13(100)	15(100)	47(100)

12) 파킨슨樣 震顫 患者의 Brain CT Scan 分布
파킨슨樣 震顫 患者 11例 中 Brain CT를 撮影한 9例의 파킨슨樣 震顫 患者의 Brain CT Scan 分布를 살펴보면 正常이 4例(44.4%)로 가장 많았고, 腦萎縮이 3例(33.3%), 其他가 2例(22.2%)로 나타났다(表12).

表12. 파킨슨樣 震顫 患者의 Brain CT Scan

파킨슨樣 震顫 患者의 Brain CT Scan	正常	腦萎縮	其他	症例(%)
	4(44.4)	3(33.3)	2(22.2)	9(100)

2. 治療成績

1) 性別·年齡別 治療成績

(1) 性別 治療成績

性別 治療成績을 살펴보면, 男性은 別無變化가 4例(50%)로 가장 많았고, 良好 3例(37.5), 優秀 1例(12.5%)의 順이었으며, 女性은 良好가 11例(50%)로 가장 많았고, 別無變化가 6例(27.3%), 優秀가 5例(22.7%)의 順으로 나타났다.

全體的으로 보면 良好가 14例(46.7%)로 가장 많았고, 別無變化 10例(33.3%), 優秀가 6例(20%)의 順으로 나타났다(表1-1).

表1-1. 性

性	優秀	良好	別無變化	症例(%)
男	1(12.5)	3(37.5)	4(50)	8(100)
女	5(22.7)	11(50)	6(27.3)	22(100)
計	6(20)	14(46.7)	10(33.3)	30(100)

(2) 年齡別 治療成績

年齡別 治療成績을 살펴보면 20代, 30代, 40代는 各各 良好 1例(100%)이었으며, 50代는 優秀 1例(100%)이었으며, 60代는 良好가 5例(45.5%)로 가장 많았고, 別無變化 4例(36.4%), 優秀 2例(18.2%)의 順이었으며, 70代는 別無變化가 6例(46.2%)로 가장 많았고, 良好 5例(38.5%), 優秀 2例(15.4%)의 順이었으며, 80代는 良好가 1例(100%)의 順이었다(表1-2).

表1-2. 年齡

年齡	優秀	良好	別無變化	症例(%)
20~29歲	0(0)	1(100)	0(0)	1(100)
30~39歲	0(0)	1(100)	0(0)	1(100)
40~49歲	0(0)	1(100)	0(0)	1(100)
50~59歲	2(100)	0(0)	0(0)	2(100)
60~69歲	2(18.2)	5(45.5)	4(36.4)	11(100)
70~79歲	2(15.4)	5(38.5)	6(46.2)	13(100)
80~89歲	0(0)	1(100)	0(0)	1(100)
計	6(20)	14(46.7)	10(33.3)	30(100)

2) 震顫 分類別 治療成績

震顫 分類別 治療成績을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良好 7例(63.6%), 別無變化 4例(36.4%)의 順이었고, 原發性 震顫은 良好, 別無變化 各各 4例(36.4%), 優秀 3例(27.3%), 心因性 震顫은 優秀, 良好 各各 3例(37.5%), 別無變化 2例(25%)의 順으로 나타나 心因性 震顫이 가장 높은 好轉度를 나타냈다(表2).

表2. 震顫 分類

分類	優秀	良好	別無變化	症例(%)
파킨슨樣 震顫	0(0)	7(63.6)	4(36.4)	11(100)
原發性 震顫	3(27.3)	4(36.4)	4(36.4)	11(100)
心因性 震顫	3(37.5)	3(37.5)	2(25)	8(100)
計	6(20)	14(46.7)	10(33.3)	30(100)

3) 病歷期間別 治療成績

病歷期間別 治療成績을 살펴보면 2日 以內는 優秀, 良好 2例(50%)이었고, 2日~1週日 以內는 良好 4例(66.7%), 優秀 2例(33.3%)이었으며, 1週日~1個月 以內는 良好 4例(80%), 優秀 1例(20%)이었으며, 1~3個月 以內는 別無變化 4例(80%), 良好 1例(20%)이었으며, 3~6個月 以內는 良好 1例(100%)이었으며, 6個月 以上은 別無變化가 6例(66.7%), 良好 2例(22.2%), 優秀 1例(11.1%)의 順으로 나타났다(表3).

表3. 病歷期間

病歷期間	優秀	好轉	別無變化	症例(%)
2日 以內	2(50)	2(50)	0(0)	4(100)
2日~1週日 以內	2(33.3)	4(66.7)	0(0)	6(100)
1週日~1個月 以內	1(20)	4(80)	0(0)	5(100)
1~3個月 以內	0(0)	1(20)	4(80)	5(100)
3~6個月 以內	0(0)	1(100)	0(0)	1(100)
6個月 以上	1(11.1)	2(22.2)	6(66.7)	9(100)
計	6(20)	14(46.7)	10(33.3)	30(100)

4) 入院期間別 治療成績

入院期間別 治療成績을 살펴보면 1週日 以內는 良好, 別無變化가 各各 6例(40%), 優秀 3例(20%)이었고, 1~2週日 以內는 良好, 別無變化가 各各 3例(42.9%)이었으며, 2週日~1個月 以內는 良好 3例(50%), 優秀 2例(33.3%), 別無變化 1例(16.7%)이었으며, 1~3個月 以內는 良好 2(100%)例로 나타났다(表4).

表4. 入院期間

入院期間	優秀	良好	別無變化	症例(%)
1週日 以內	3(20)	6(40)	6(40)	15(100)
1~2週日 以內	1(14.3)	3(42.9)	3(42.9)	7(100)
2週日~1個月 以內	2(33.3)	3(50)	1(16.7)	6(100)
1~3個月 以內	0(0)	2(100)	0(0)	2(100)
計	6(20)	14(46.7)	10(33.3)	30(100)

IV. 考察

震顫이란 振掉, 顫振이라고도 하는데¹⁾, 頻도가 1 稍當 3~6회로 一定한 不隨意 運動을 말하며²⁷⁾, 大개 上下肢의 末端部位에서 볼 수 있으나 때로는 體幹·頭部·顔面·턱·舌 등으로 波及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2,3)}, 老人에게 多發하며, 男性이 女性에 比하여 多發하는 疾患이다^{4,5)}.

韓醫學의 으로 살펴보면 內經에는 《素問·至眞要大論》⁶⁾에 “諸風掉眩 皆屬於肝 ……散于四末 則手足動而頭不動也”라 하여 掉이 震顫을 가리키는 것으로 震顫의 症狀을 最初로 言及하였고, 肝과 關係가 있다고 보았다.

病機를 살펴보면 王⁷⁾은 “肝主風……木氣鼓之 故動”이라 하여 內經의 뜻과 一致하게 肝風으로 보았고, 許^{9~11)}은 心血虛, 氣血內傷으로 보았고, 樓¹²⁾는 “風火相乘……虛亦有之 治各不同也”라 하여 風熱, 風寒, 風挾濕痰, 虛症으로 보았고, 傳²⁸⁾는 “產婦失血既多……顫由氣虛也”라 하여 氣虛로 보았으며, 劑¹³⁾는 肝鬱氣滯, 風痰內阻, 肝腎陰虛, 氣血虧損, 瘀血阻絡으로 보았다. 清代에서 張²⁹⁾은 “蓋木盛則生風生化……手足動而頭不動也”라 하여 最初로 震顫을 한 介의 獨立된 病名으로 認識하였다.

韓醫學의 으로는 歷代 文獻에서 震顫과 類似한 症狀을 瘰, 癭瘰, 擊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瘰에 對해 살펴보면 王⁷⁾은 “熱因鬱即愈甚……大小筋俱受熱害而剛瘰”이라 하여 鬱熱이 傷筋하여 瘰이 된다고 하였고, 張³⁰⁾은 “產後發瘰乃陰血大虧證也……無非血燥血枯之病”이라 하여 瘰病을 血枯, 血燥의 病이라고 하였다.

瘰瘰에 對해 살펴보면 樓¹²⁾는 “河曰諸熱瘰瘰……亦癭瘰筋擊 此肝虛也”라 하여 病因을 風熱, 心火虛寒, 心火實熱, 脾虛肝乘, 肝虛 등으로 보았고, 張³⁰⁾은 心氣虛, 心火旺, 脾虛生風, 肝熱生風, 熱傷元氣 등에 衣해 發生한다고 보았다.

擊에 對해 살펴보면 王^{7,12,30)}은 肝主筋이므로 擊은 肝과 關係가 있다고 보았고, 傳²⁸⁾는 “蓋血虧則筋病……筋自縮急”이라하여 血이 虧損되면 筋病이 오고 氣가 不順해도 筋에 縮急이 온다고 하였

고, 巢³¹⁾는 擊急의 原因을 風冷으로 보았다.

以上의 瘰, 癭瘰, 擊 등을 살펴보면 臟器로는 肝, 心, 脾와 關聯이 많고, 病機는 心脾兩虛, 肝血不足, 肝熱生風, 風熱, 風冷, 氣滯 등으로 發生하기 쉽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는 震顫의 病機와 類似하다고 볼 수 있다.

震顫의 治法에 對하여 살펴보면, 張²⁹⁾은 肝木實熱하면 瀉青丸, 肝木虛熱하면 六味地黃丸, 肝木虛弱하면 逍遙散, 挾痰일 때는 導痰湯, 脾胃虛弱일 때는 六君子湯 등을 用하였고, 王⁷⁾은 氣虛에는 參朮湯, 心虛에는 補心丸, 挾痰일 때에는 導痰湯, 老人의 震顫에는 定振丸을 使用하였고, 巢³¹⁾은 氣虛로 因한다고 하여 壯氣元陽을 爲主로 補中益氣湯을 使用하였다.

劑³²⁾는 平肝熄風하는 羚羊鉤藤湯, 滋陰熄風하는 二甲復脈湯, 除風化痰하는 導痰湯, 祛風散寒하는 黃芪桂枝五物湯, 健脾熄風하는 六君子湯, 養血熄風하는 定振丸을 使用하였다.

以上을 考察하여 보면 震顫은 清代 以前 歷代 여러 醫家들의 瘰, 癭瘰, 擊 등의 症狀에서 類似點을 찾아 볼 수 있으며, 病機는 肝, 心, 腎과 關聯되어 肝風, 肝鬱氣滯, 心血虛, 氣血不足, 肝腎陰虛, 風濕痰, 瘀血 등으로 볼 수 있으며, 治法은 平肝熄風, 養血熄風, 健脾熄風, 補氣補血, 化痰, 補肝腎하는 羚羊鉤藤湯, 逍遙散, 導痰湯, 六君子湯, 補中益氣湯, 定振丸 등을 多用 하였음을 알 수 있다.

西洋醫學에서는 震顫이란 비교적 律動的인 震動運動으로 대부분 大腦皮質의 椎體外路系疾患으로 因하여 震顫이 發生한다고 認識하고 있으며^{14,15)}, 또한 腦內 神經傳達物質의 增量變化 및 心理的 要因에 依해서도 惹起된다고 說明하고 있다^{16~18)}.

樣狀에 따라 나누어 보면 쉬고 있을 때에 가장 뚜렷이 나타나며 隨意的 運動時에 감소가 특징으로 파킨슨 병에서 나타나는 靜止震顫(resting tremor), 쉬고 있을 때에는 없어지며, 運動時 나타나 목표물이 가까와질 수록 심해지는 소뇌성 질환에서 나타나는 企圖震顫(intent tremor), 該當部位를 어떤 자세로 維持하려고 할 때 發生하는 不安, 疲勞時 나타나는 體位性 震顫(postural tremor)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3,33~35)}.

原因에 따라 나누어 보면 대부분 腦의 病變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老人에게 多發하며 隨意運動으로 오히려 增加하는 老人性 震顫, 둘째 上肢末梢에 好發하며 갑상선기능항진증, 요독증 등의 內因性 疾患이나 알콜, 담배, 수은, 코카인 中毒으로 나타나는 中毒性 震顫, 셋째 四肢에 粗大한 震顫이 確認되고, 筋硬直, 隨意運動의 障害를 隨伴하며, 상지 특히 손에 分明하고, 安靜時 確認되며, 손가락의 움직임은 환약을 만드는 듯한 운동 (pill-rolling movement)이 나타나는 파킨슨樣 震顫, 넷째 소녀와 중년을 연결하는 상소녀각의 병변에 의한 企圖震顫, 다섯째 간성혼수, 뇨독증, 저나트륨혈증 등의 代謝疾患에 의하여 나타나는 날개치기 震顫, 여섯째 Wilson 병에서 나타나며 上肢 全體가 날개 치듯이 크게 움직이는 Wing Beating Tremor로 分類되며, 그 외에 유전성이 어느 정도 認定되며, 아무런 原因도 확인할 수 없는 本態性 震顫과, 疲勞, 感情的 興奮, 寒冷時의 震顫이 특징이며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生理的 震顫 등 세 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²⁰⁾.

現在 震顫의 治療를 爲하여 中樞神經系에 多様な 效果를 나타내며 많은 神經傳達物質과 二次傳令體系에 作用하는 抗痙攣劑가 使用되고 있는데 現在 가장 널리 사용되는 抗痙攣劑로는 Carbamazepine과 Valporate이다. Carbamazepine은 大體로 中樞神經系에 作用하여 kindling 科程의 抑制를 痛해 抗痙攣 作用을 나타내며, Valporate는 GABA (gamma-aminobutyric acid)의 代謝를 遲延시켜 中樞神經系에 GABA의 活性度를 增加시키는 機轉을 통하여 抗痙攣 作用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藥物을 長期間 使用하였을 境遇 副作用으로 皮膚發疹, 運動協同障礙, 졸리움, 眩暈, 言語障礙, 運動失調, 惡心, 嘔吐, 泄瀉 등의 副作用을 나타낼 수 있다³⁶⁾.

近來에 營養狀態의 改善과 傳染性 疾患의 克服 등으로 人間의 壽命이 延長되고, 産業構造의 多變化로 各種 精神的, 肉體的 刺戟要因들이 增加하면서 老化로 인한 震顫이 增加하는 趨勢에 있으나 西洋醫學에서도 아직 正確한 機轉이 밝혀지지 않아 原因治療가 되지 않고 藥物治療에 衣한 對症療法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治療 效果

를 기대할 수 없으며 副作用이 深刻한 상황이다^{15,37)}. 이에 著者는 最近의 震顫의 樣狀에 對하여 研究하여 보았다.

震顫 分類別 性別 分布를 살펴보면 性別로는 全體적으로는 男性 10例(33.3%), 女性 20例(66.7%)로 女性에 더 多發하였는데, 許 등⁴⁵⁾의 震顫은 女性에 비해 男性에 多發한다는 내용과 다르게 調査되었고, 파킨슨樣 震顫 또한 男性이 4例(36.4%), 女性이 7例(63.6%)로 女性에게 多發하였는데, 이는 正³⁸⁾의 파킨슨병이 男性에게 多發하는 것과 다르게 調査되었다. 原發性 震顫은 男性이 5例(45.5%), 女性이 6例(54.5%)이었으며, 心因性 震顫은 男性이 1例(12.5%), 女性이 7例(87.5%)로, 특히 心因性 震顫의 境遇 女性의 比率이 높았다.

年齡別로는 파킨슨樣 震顫은 60, 70代가 各各 5例(45.5%)로 가장 많았고, 80代가 1例(9.1%), 20, 30, 40, 50代는 없었다. 原發性 震顫은 70代가 7例(63.7%)로 가장 많았고, 60代 2例(18.2%), 20, 40代 1例(9.1%), 30, 50, 80代는 없었다. 心因性 震顫은 60代가 4例(50%)로 가장 많았고, 50對 2例(25%), 30, 70代가 各各 1例(12.5%), 20, 40, 80代는 없었다. 全體적으로 60代 以上의 高齡層에 多發하였는데,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은 모두 60代 以上이었으나, 心因性 震顫의 境遇 多様な 年齡層에서 發病하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過去歷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別無, 高血壓 各各 4例(26.7%), 糖尿 3例(20%), 脊椎障礙 2例(13.3%), 心臟·血管疾患, 腦血管疾患이 各各 1例(6.7%)의 順이었으며, 原發性 震顫은 別無, 高血壓, 脊椎障礙, 心臟血管疾患 各各 3例(18.8%), 糖尿, 腦血管疾患 2例(12.5%)의 順이었고, 心因性 震顫은 別無, 糖尿가 各各 3例(25%), 高血壓, 憂鬱症 各各 2例(16.7%), 脊椎障礙, 心臟血管疾患 各各 1例(8.3%)의 順이었으며, 全體적으로 別 다른 過去歷이 없는 境遇가 10例(23.3%)로 가장 많았고, 高血壓 9例(20.9%), 糖尿 8例(18.6%), 脊椎障礙 6例(14%), 心臟·血管疾患 5例(11.6%), 腦血管疾患 3例(7%), 憂鬱症 2例(4.7%)의 順으로 나타났다. 즉 別 다른 過去歷이 없는 境遇와 高血壓, 糖尿의 過去歷이 많이 調査되었는데 이는 震顫이 年齡이

높아지면서 原因 不明의 大腦變成에 依하여 本病이 發生하지만, 高血壓, 糖尿 등의 病因에 依해서도 續發的으로 發生한다는 西洋醫學의 病因論과 一致함을 보여주고 있다.

飲酒歷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無飲酒 9例(81.8%), 少量飲酒, 多量飲酒 各各 1例(9.1%)의 順이었고, 原發性 震顫은 無飲酒 9例(81.8%), 少量飲酒 2例(18.2%)의 順이었으며, 心因性 震顫은 無飲酒가 6例(75%), 少量飲酒, 多量飲酒 各各 1例(12.5%)의 順으로 全體적으로 無飲酒 24例(80%), 少量飲酒 4例(13.3%), 多量飲酒 2例(6.7%)의 順으로 나타났는데 飲酒歷과 震顫은 特別한 聯關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入院 前 治療狀況의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洋方病院을 利用한 境遇가 4例(36.4%), 初診, 韓醫院, 洋方病院→韓醫院 各各 2例(18.2%), 韓醫院→洋方病院 1例(9.1%)의 順이었고, 原發性 震顫과 心因性 震顫은 初診이 많았고 全體적으로 初診이 17例(56.7%)로 가장 많았는데 이 疾患에 對한 現代人의 韓方病院 選好度를 알 수 있었다.

發病動機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은 特別한 發病動機가 없었으며, 心因性 震顫은 對人關係葛藤이 4例(50%)로 가장 많았고, 發病動機가 없는 境遇가 2例(25%), 精神의 衝擊, 健康念慮가 各各 1例(12.5%)로 나타났다.

病歷期間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6個月以上이 5例(45.5%), 1週日~1個月以內 2例(18.2%), 2日, 2日~1週日, 1~3個月, 3~6個月以內가 各各 1例(9.1%)의 順이었고, 原發性 震顫은 3~6個月以內가 4例(36.4%), 2日~1週日以內가 3例(27.3%), 2日以內가 2例(12.5%)의 順이었으며, 心因性 震顫의 境遇는 1~3個月以內 3例(37.5%), 1週日~1個月, 2日~1週日以內가 各各 2例(25%), 2日以內가 1例(12.5%)의 順으로, 파킨슨樣 震顫의 境遇 가장 病歷期間이 길었다. 이는 入院前 治療狀況의 分布에서 파킨슨樣 震顫의 境遇 다른 治療器官의 利用率이 높았고, 原發性, 心因性 震顫의 境遇 初診의 比率이 높았던 것과 關係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入院期間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1週

日以內 5例(45.5%), 2週日~1個月以內 3例(27.3%), 1~3個月以內 2例(18.2%), 1~2週日以內 1例(9.1%)의 順이었고, 原發性 震顫은 1週日以內 7例(63.6%), 1~2週日以內 3例(27.3%), 2週日~1個月以內 1例(9.1%)의 順이었으며, 心因性 震顫은 1週日以內, 2週日~1個月以內가 各各 3例(37.5%), 1~2週日以內가 2例(25%)의 順으로 全體적으로 1週日以內 15例(50%), 2週日~1個月以內 7例(23.3%), 1~2週日以內 6例(20%), 1~3個月以內 2例(6.7%)의 順으로 나타났다. 파킨슨樣 震顫의 境遇 入院期間의 分布가 다양하였고, 原發性 震顫, 心因性 震顫의 境遇 모두 1個月以內로 入院期間이 짧았다.

發生部位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四肢部가 8例(50%)로 가장 많았는데, 兩側上肢 3例(18.8%), 兩側手部 2例(12.5%), 偏側上肢, 偏側手部, 偏側上下肢 各各 1例(6.3%)의 順이었으며, 頭面部는 2例(12.5%)로 모두 舌部에 나타났으며, 全身 4例(25%), 體幹部 2例(12.5%)의 順이었다. 原發性 震顫은 四肢部가 8例(57.1%)이었는데, 兩側上肢, 偏側上下肢, 兩側手部가 各各 2例(14.3%), 偏側上肢, 四肢 各各 1例(7.1%)의 順이었다. 頭面部는 4例(28.6%)로 顏面部, 頭部 各各 2例(14.3%)로 나타났으며, 全身은 2例(14.3%)이었다. 心因性 震顫은 四肢部가 6例(60%)이었는데 偏側上下肢 2例(20%), 偏側上肢, 偏側下肢, 兩側下肢, 四肢 各各 1例(10%)의 順이었고, 全身 2例(20%), 頭面部는 1例(10%)로 顏面部에 나타났으며, 體幹部 1例(10%)로 나타났다. 全體적으로 四肢部가 22例(55%)로 가장 많았는데, 兩側上肢, 偏側上下肢 各各 5例(12.5%), 兩側手部 4例(10%), 偏側上肢 3例(7.5%), 四肢 2例(5%), 偏側手部, 偏側下肢, 兩側下肢 各各 1例(2.5%)의 順이었으며, 全身 8例(20%), 頭面部는 7例(17.5%)로 顏面部 3例(7.5%), 舌部, 頭部 各各 2例(5%)의 順이었으며, 體幹部는 3例(17.5%)이었다.

同伴 症狀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筋骨格系 症狀(51.7%)이 가장 많았는데 下肢無力感(17.2%), 肩項痛(10.3%), 四肢痺感, 全身無力感(各各 6.9%), 徐動症, 全身硬直, 腰痛(各各 3.4%)의 順이었으며, 다음으로 精神身體 症狀(41.3%)이 많았는데 語鈍(10.3%), 頭痛, 胸悶(各各 6.9%), 眩暈,

不眠,心悸,上熱感,記憶力減退(各各3.4%)의 順이었고, 다음으로 消化器系 症狀으로 食慾不振(6.9%)이었다.

原發性 震顫은 精神身體 症狀(52%)이 가장 많았는데,眩暈(12%),語鈍,胸悶,頭痛(各各8%),心悸,上熱感,記憶力減退,譫語(各各4%)의 順이었고, 다음으로 筋骨格系 症狀(32%)이 많았는데 全身無力感,腰痛(各各12%),四肢痺感,肩項痛(各各4%)의 順이었으며, 다음으로 消化器系 症狀(16%)으로 食慾不振,消化障礙(各各8%)이 있었다.

心因性 震顫은 精神身體 症狀(60.5%)이 가장 많았는데,眩暈,不眠(各各15.9%),頭痛(7.9%),語鈍,不安,胸悶(各各5.3%),心悸,上熱感(各各2.6%)의 順이었으며, 다음으로 筋骨格系 症狀(26.3%)이 많았는데 全身無力感(10.5%),下肢無力感(7.9%),腰痛,四肢痺感,偏側無力感(各各2.6%)의 順이었으며, 다음으로 消化器系 症狀(13.2%)으로 食慾不振(7.6%),消化障礙(3.3%),便秘(1.1%)의 順이었다. 原發性 震顫,心因性 震顫은 모두 精神身體 症狀,筋骨格系 症狀,消化器系 症狀의 順이었으나, 파킨슨樣 震顫의 境遇 筋骨格系 症狀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파킨슨樣 震顫이 GABA의 量의 不調和에서 發生하며, GABA는 또한 人體를 抑制하고, 筋肉을 硬直시키는 作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全體的으로 보면 眩暈,頭痛,不眠 등 精神身體 症狀(52.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全身無力感,下肢無力感,腰痛 등 筋骨格系 症狀(35.9%)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食慾不振,消化障礙 등 消化器系 症狀(12%)이 많았다.

體質 分布를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少陰人 6例(54.5%),太陰人 4例(36.4%),少陽人 1例(9.1%)의 順이었고, 原發性 震顫은 太陰人 6例(36.4%),少陰人 3例(27.3%),少陽人 2例(18.2%)의 順이었으며, 心因性 震顫은 太陰人,少陰人 各各 4例(50%)의 順으로 全體的으로 太陰人 14例(46.7%),少陰人 13例(43.3%),少陽人 3例(10%)의 順으로 나타났다.

處方分布를 살펴보면 鎮肝安神하는 處方(27.7%)이 가장 많았는데 桂枝加龍骨牡蠣湯(25.5%)이 單一 處方으로는 가장 많았고, 鎮肝熄風湯(2.1%)이

있고, 그 다음으로 養陰血安神하는 處方(27.7%)이 많았는데 四物安神湯(6.4%),四物歸脾湯,大補陰丸(各各4.3%),加味四六湯,加味地黃飲子,安神清腦湯,愈風養榮湯,荊防地黃湯,獨活地黃湯(各各2.1%)였으며, 다음으로 健脾益氣하는 處方(19.1%)이 많았는데 補益湯,補中益氣湯(各各6.4%),大補湯,人蔘養胃湯,香砂平胃散(各各2.1%)였고, 다음으로 清養心溫膽하는 處方(17.0%)였는데 清心湯(6.4%),歸脾溫膽湯(4.3%),萬金文武湯,涼膈散火湯,夏朮補心湯(各各2.1%)을 用하였고, 順氣理氣하는 處方(6.4%)으로는 星香正氣散(4.3%),痺症A(2.1%)을 用하였고, 疏肝解鬱하는 清肝逍遙散(2.1%)의 順으로 多用되었다.

파킨슨樣 震顫 患者 11例 中 Brain CT를 撮影한 9例의 Brain CT Scan 分布를 살펴보면 正常이 4例(44.4%)로 가장 많았고, 腦萎縮이 3例(33.3%),其他가 2例(22.2%)로 나타났는데, 파킨슨樣 震顫이 年齡이 높아지면서 發生하는 大腦萎縮과 關係가 깊지만 Brain CT Scan이 診斷에 큰 有意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藥物治療는 患者의 症狀에 따라 辨證加減하여 大田大學校 附屬 韓方病院 處方典의 貼藥 또는 액기스劑를 投與하였고, 鍼灸治療는 合谷,太衝,百會,命門,肝俞,中脘,關元을 主穴로 使用하였으며, 그 밖에 患者의 狀態에 따라 舍岩鍼法과 太極鍼法을 使用하였다. 其他 補助的 治療로 物理治療, 耳鍼療法, 香氣療法, 瞑想治療를 함께 使用하였는데 治療成績을 보면 다음과 같다.

性別 治療成績은 男性은 別無變化 4例(50%),良好 3例(37.5%),優秀 1例(12.5%)의 順이었고, 女性은 良好 11例(50%),別無變化 6例(27.3%),優秀가 5例(22.7%)의 順으로 나타나 女性이 男性에 비해 治療效果가 높은 것으로 調查되었다. 全體的으로 보면 良好가 14例(46.7%)로 가장 많았고, 別無變化 10例(33.3%),優秀가 6例(20%)의 順으로 나타났다.

年齡別 治療成績을 살펴 보면 20代, 30代, 40代 50代 모두 各各 1例로 優秀,良好하게 好轉되었고, 60代는 良好 5例(45.5%),別無變化 4例(36.4%),優秀 2例(18.2%)의 順이었으며, 70代는 別無變化 6

例(46.2%), 良好 5例(38.5%), 優秀 2例(15.4%)의 順이었으며, 80代는 良好 1例(100%)의 順으로 大體的으로 靑壯年層이 老年層에 比하여 治療效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分類別 治療成績을 살펴보면 파킨슨樣 震顫은 良好 7例(63.6%), 別無變化 4例(36.4%)의 順이었고, 原發性 震顫은 良好, 別無變化 各各 4例(36.4%), 優秀 3例(27.3%), 心因性 震顫은 優秀, 良好 各各 3例(37.5%), 別無變化 2例(25%)로 나타나 心因性 震顫이 가장 높은 好轉度를 나타냈다.

病歷期間別 治療成績을 살펴보면 2日以內 優秀, 良好 各各 2例(50%)이었고, 2日~1週日以內 良好 4例(66.7%), 優秀 2例(33.3%)이었으며, 1週日~1個月以內는 良好 4例(80%), 優秀 1例(20%)이었으며, 1~3個月以內는 別無變化 4例(80%), 良好 1例(20%)이었으며, 3~6個月以內는 良好 1例(100%)이었으며, 6個月以上은 別無變化가 6例(66.7%), 良好 2例(22.2%), 優秀 1例(11.1%)의 順으로 나타나 病歷期間이 특히 1個月以內로 짧을수록 治療效果가 優秀한 것으로 나타났다.

入院期間別 治療成績을 살펴보면 1週日以內 良好, 別無變化 各各 6例(40%), 優秀 3例(20%), 1~2週日以內 良好, 別無變化 各各 3例(42.9%), 優秀 1例(14.3%), 2週日~1個月以內 良好 3例(50%), 優秀 2例(33.3%), 別無變化 1例(16.7%), 1~3個月以內는 良好 2例(100%)로 나타났는데, 入院期間과 相關없이 治療成績이 比較的 良好하였다.

以上을 總括하여 보면 性別로는 男性에 比해 女性에게 더 많았고, 특히 心因性 震顫의 境遇는 女性이 많았으며, 年齡別로는 60代以上 老人에서 多發하였다. 過去歷이 전혀 없는 데도 震顫이 多發함을 알 수 있었고, 高血壓, 糖尿가 많았으며, 대부분 無飲酒가 많았는데 飲酒歷은 震顫發生과 큰 聯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入院前 治療現況은 파킨슨樣 震顫은 洋方病院을 利用한 境遇가 제일 많았고, 原發性 震顫과 心因性 震顫의 境遇는 初診이 가장 많았다. 入院期間은 大部分 1個月以內로 짧았고, 心因性 震顫은 3個月以內에 對人關係 葛藤으로 因하여 入院하는 境遇가 많았으며,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은 모두 別 다른 動機없이

來院하였다. 發生部位를 살펴보면 四肢部가 가장 많았으며, 震顫과 함께 同伴되는 症狀은 파킨슨樣 震顫의 境遇는 下肢無力感, 肩項痛, 四肢痺感, 全身無力感 등 筋骨格系 症狀이 많았고, 原發性 震顫과 心因性 震顫은 모두 眩暈, 頭痛, 不眠 등 精神身體 症狀이 많았다. 體質은 다른 體質에 比해 太陰人이 가장 많았고, 處方은 鎮肝安神하는 桂枝加龍骨牡蠣湯과 養陰血安神하는 四物安神湯 등의 處方이 多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治療成績은 病歷期間은 1個月以內로 짧은 境遇는 完治됨을 알 수 있었고, 治療率은 全體的으로 66.7%로 比較的 높은 偏이었는데, 靑壯年層이 老年層에 比하여 治療率이 높았으며, 특히 心因性 震顫의 境遇에 더 잘 治療됨을 알 수 있었다.

V. 結論

1997年 4月 1日부터 2001年 3月 31日 까지 大田 大學校 附屬 韓方病院 神經精神科에 震顫을 主訴로 入院한 患者 30例을 對象으로 臨床分析을 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性別로는 女性이 더 많았고, 특히 心因性 震顫의 境遇에 女性이 많았으며, 年齡別로는 60代以上 老人에서 多發하였다.
2. 過去歷이 없어도 多發하였고, 高血壓, 糖尿가 많았으며, 飲酒歷은 震顫과 聯關이 없었고, 初診이 많았고, 心因性 震顫은 3個月以內에 對人關係 葛藤으로 因하여 多發하였으며, 파킨슨樣 震顫, 原發性 震顫은 모두 別無動機였다.
3. 發生部位는 四肢部에 多發하였고, 파킨슨樣 震顫은 下肢無力感, 肩項痛, 四肢痺感, 全身無力感 등 筋骨格系 症狀, 原發性 震顫과 心因性 震顫은 眩暈, 頭痛 등 精神身體 症狀 등과 同伴되어 나타났다.
4. 體質은 太陰人이 가장 많았고, 處方은 鎮肝安神하는 桂枝加龍骨牡蠣湯과 養陰血安神하는 四物安神湯 등의 處方이 多用되었다.
5. 好轉率은 全體的으로 良好한 偏이었는데, 靑壯年層이 老年層에 比하여 높았으며, 특히

心因性 震顛이 가장 良好하였고, 病歷期間이 1個月 以內로 짧을수록 良好한 好轉率을 보였다.

參 考 文 獻

1. 黃文東 : 實用中醫內科學, 上海科技, 1985, pp.424~425,
2. 강두희 :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98, pp.36~40.
3. 최창락 외 : 신경외과학, 서울, 중앙문화사 2000, pp.50~51.
4. 許沛虎 : 中醫腦病學,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p.104~105.
5. 박영춘 : 신경계 노인성질환, 대한내과학회잡지, 28(6), 1982, p.752.
6. 王 琦 外 :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439.
7. 王肯堂 : 六科證治準繩,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276, 280, 281, 282, 519.
8. 謝 觀 :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80, p.1151.
9. 許 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1, p.299.
10. 金定濟 : 診療要鑑,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3, p.422.
11. 金相孝 : 東醫神經精神科學, 서울, 杏林出版, 1984, pp.311~312.
12. 樓 英 : 醫學綱目 人民衛生出版社, 1987, p.345, 351, 354, 357, pp.392~393.
13. 劑東亮 : 內科難治病的中醫治療, 人民君醫出版社, 1994, pp.306~309.
14. 姜斗熙 : 生理學, 서울, 新光出版社, 1988, pp.36~40.
15. 李聰甫 : 傳統老年醫學,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6, pp.517~519.
16. 김인재 : 癩證에 關한 文獻의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6(2), 1998, pp.705~714.
17. 고건일 外 : 인체생리학, 探求堂, 1993, pp.187~188, p.230.
18. 송창원 외 : Hemiballism 1예, 대한신경과학회지, 9(1), 1991, p.114.
19. 유경무 외 : 경련환자의 혈중 Prolactin치의 변동에 관한 연구, 대한신경과학회지, 5(2), 1987, p.124.
20. 金科元 : 臨床神經診察法, 瑞光醫學書林, 1993, pp.152~155.
21. 金在亨 : 清心溫膽湯이 白鼠의 抗痙攣, 解熱, 鎮痛, 鎮靜 및 GABAergic system에 미치는 影響,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8(1), 1997, pp.95~109.
22. 金德坤 : 加味鈎藤飲의 抗痙攣作用에 關한 實驗的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14(1), 1993, pp.24~30.
23. 玄禹天 : 抑肝散과 抑肝散加味方의 鎮痙 및 鎮痛效果에 關한 實驗的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1994.
24. 申明燮 : 鈎藤水鍼이 鎮痛, 抗痙攣 및 鎮靜作用에 미치는 影響, 大田大學校 大學院, 1995.
25. 徐美榮 : 葛根水鍼의 抗痙攣, 鎮痛作用에 미치는 影響, 大韓針灸學會誌, 10(1), 1992, pp.315~338.
26. 朴快煥 : 天麻水鍼이 抗痙攣效果에 미치는 影響, 慶熙大韓醫大論文集, 11(1), 1988, pp.15~35.
27. 閻孝誠 外 : 實用中醫腦病學, 北京, 學苑出版社, 1993, p.114.
28. 傅青主·葉天士 : 傅青主男女科·葉天士女科, 大星文化出版社, 1984, p.133, 65.
29. 張 璐 : 張氏醫通,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p.291~292, p.294, 296, 297.
30. 張介賓 : 景岳全書, 大星文化社, 1988, pp.196~198, p.204, pp.242~243.
31. 巢元方 : 諸病源候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221.
32. 劑當芳 : 中醫臨證手冊, 四川辭書, 1988, p.197.
33. 이준상 : 건강 진단법, 서울, 고려의학, 1994, p.506.
34. 저사선 외 : 신경해부학, 서울, 汎文社, 1999,

p.139, 190, 336, 338.

35. 이광우 외 : 임상신경학, 서울, 고려의학, 1996, pp.304~306.
36. 민성길 :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2000, pp.661~663.
37. 袁立人 : 中醫傳統老年病學,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2, pp.531~354.
38. 정경천 외 : 파킨슨병의 임상경과, 대한신경과학회지, 3(2), 1985, pp.217~218.